

탈북자의 상처와 치유†

김재영*

〈국문요약〉

본 논문은 탈북자들이 겪는 상처들을 살펴보고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쓰여졌다. 먼저 탈북을 양산하는 북한의 실정을 검토하고 북한 주민이 탈북을 감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살펴보았다. 그 다음으로 북한의 탈주민이 탈북을 하는 과정과 탈북 후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는 아픔과 상처들을 검토했다. 탈북민은 탈출에서 정착까지, 그리고 정착 후에도 환경의 변화와 내외의 시련 속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비롯하여 많은 상처들을 입는다. 이들을 치유하는 것은 통일 후에 겪게 될 남북한 주민들이 겪는 혼란을 미리 경험해 본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본고에서는 탈북민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 남과 북의 기독교와 불교가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제시했다. 통일은 비단 정치 경제의 영역에서만 다룰 일이 아니다. 정치의 대상이자 주체이고 경제의 대상이자 주체인 사람에 대한 정책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 통일의 과정에서 상처를 입는 남북 구성원에 대한 치유와 돌봄이야말로 통일의 정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주제어] 통일, 탈북민, 상처, 치유

* 김재영(E-mail: chaekim@sogang.ac.kr)
학위취득대학: 오타와 대학교 종교학 박사
현직: 서강대학교 국제인문학부 종교학과

† 이 논문은 2016년도 경제사회인문 연구회 인문정책 연구 사업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습니다.

논문접수일: 2017년 4월 5일, 논문수정일: 2017년 8월 16일, 게재확정일: 2017년 8월 16일

Wounds and Healing of Defectors

Kim, Chae-you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look at the wounds suffered by North Korean refugees and to prepare measures to heal them. First, we examined the reality of mass produc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and examined why North Koreans are forced to defect. Next, I examined the pain and hurts that North Korean residents suffered during the process of defecting and the process of settlement after defecting. The refugees wear many wounds, from the escape to the settling and after, including identity confusion due to the change of environment and the trials inside and outside. It is meaningful to have experience of healing prior to confusion which will happen to the North and South Koreans after unification. This article suggests that Christianity and Buddhism in South and North Korea can play their own roles in the process of healing the wounds of the refugees. Unification is not something to be covered only as a political and economic issue. There must be a policy and consideration for the people affected by politics and the economy. Healing and caring for members of the South and the North who are wounded in the process of unification are most important elements in unification policy.

[Keywords] *Unification, refugee, wound, healing*

I. 서론

북한에서 넘어온 이들을 새터민이라고 일컫는다. 이들은 북한을 버리고 남한으로 탈출하는 사람들이다. 북한의 전제주의적인 상황과 경제난으로 인한 인민들의 피폐한 생활은 이제 그들이 자신들이 태어난 곳을 버리고 남한으로 이주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이 땅으로 넘어온 사람들은 벌써 2만 5천명을 넘어서고 있다. 종편에서는 북한을 탈출한 이들이 중심이 돼서 엮어가는 프로그램이 있을 정도로 이제 새터민은 우리 일상 어디에서나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

탈북한 사람들은 탈북을 하고 나서야 북한의 현실을 깨닫기 시작한다. 북한의 고위층 간부들 이외에는 인터넷에 접근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외국방송을 시청하는 것도, 외국인과의 전화 통화나 서신교류도 금지되어 있다. 그런 행동을 하다가 발각되면 강제노동 수용소에 보내질 수도 있다. 김씨 정권의 만행을 규탄하는 남한의 뼈라나 간간이 철조망을 넘어 날아들 뿐, 철통같은 태세의 북한으로는 어떠한 메시지도 들어가지 못한다. 이러한 실상을 북한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경우는 해외의 경험을 하는 고위간부를 제외하고는 탈북을 했을 때에 타국에서 북한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때뿐이다.

꽃제비라는 말도 있다. 유랑 떠돌이 러시아에서 유래한 말로 북한을 탈출해 떠도는 북한주민들을 일컫는 말이다. 이들은 북한을 탈출했으니 남한으로의 탈출만 성공한다면 그래도 북한에 있는 동포들보다는 낫다고 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비정상적인 사회시스템에서 신음하다가 탈출하여 타국을 떠도는 북한 동포들, 남한으로 겨우겨우 들어오는 새터민들, 이들이 우리의 동포라는 사실, 외면해서는 안 될 일이

다.

본고는 탈북자들이 탈북을 하면서, 탈북을 하는 과정에서, 탈북이후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는 상처와 아픔들에 주목한다. 각각의 과정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기대야 할 대상이 필요하며 종교학의 입장에서 ‘중간대상’이라는 용어로 풀어가고자 한다. 의지할 대상이 필요하거나 상처를 입은 사람이 기댈 수 있는 대상은 이념이나 돈, 권력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실상 북한의 주민들이 김일성이라고 하는 대상이 존재함으로써 그들의 모든 종교적인 에너지를 투사해서 일종의 심리적인 위안을 얻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의 정치체제나 지도체제에 허구성을 깨닫고 북한을 탈출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북한의 폐쇄적인 정치체제나 이념이 그들에게 중간대상의 역할을 더 이상 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탈북의 과정에서 상처를 입은 탈북민들에게 위안을 주는 중간대상을 본고는 종교의 영역에서 발견하고자 한다. 즉 이들이 종교의 울타리 내에 들어오거나 또는 종교적인 경험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상처들을 치유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탈북을 하는 사람들의 내부적인 상처들이 중요한 이유는 종교학적인 입장에서 통일을 바라볼 때 그 대상은 정치체제도 아니요, 경제체제도 아니요 바로 사람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통일의 대상을 사람으로 바라볼 때 이들의 상처나 트라우마의 해결은 단순히 정치적인 통합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문제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는 통일의 과정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주체에 초점을 맞추는 전체적인 틀 속에서도 탈북을 감행할 수밖에 없는 탈북자들이 경험하는 상처들에 특히 집중하고자 한다. 이들을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보듬어야 하는지를

인식하고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종교로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한 작업을 위해서 탈북을 감행하는 탈북자들의 모습들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는 작업이 본고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탈북하기 이전과 탈북과정과 정착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들을 종교는 어떠한 방식으로 감당할 수 있을 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즉 통일의 과정에서 그리 주목받을 것 같지 않고 등한시되기 쉬운 종교의 영역과 종교의 역할이 사실은 어느 영역 못지않게 중요할 수밖에 없음을 탈북민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 속에서 보여주하고자 한다.

통일의 과정에서 탈북자들의 경험이 중요한 까닭은 그들이 가지는 경험은 곧 우리가 통일을 이룰 때 함께 해야 할 북한 주민들의 모습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즉 통일을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상황과 문제를 축소적인 모습으로 미리 보고 대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통일이 된다면 그들이 탈북의 위협을 무릅쓰는 경험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들의 사고와 가치관 경험들은 고스란히 남한의 국민들과 나누어야 할 부분이 되기 때문이다. 통일이전에 북한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통일을 대비해 탈북자들의 경험과 그에 대한 분석을 하고자 한다.

본고에 앞서 탈북자의 상처와 적응을 다룬 몇 편의 논문²⁾을 살펴보면 탈북자들이 겪는 고통과 트라우마에 집중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본고는 몇 편의 이런 논문들에서 보여주

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한 발 더 나아가 차별적인 대안으로 종교적인 시각을 제공함과 동시에 종교의 역할에 주목하며 논문을 이끌어가고자 한다.

II. 탈북자들을 양산하는 요인들 - 북한의 상황

북한의 정치체제는 주체사상을 확립한 김일성의 사망 이후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일인독재의 전제주의 체제가 해방이후 계속 되어오고 있다. 김일성에 의해 확립된 주체사상은 북한에서 통치이념과 정치, 경제 체제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으며 김정은으로 이어진 정권은 주민들의 생활은 뒤로 한 채 정권의 안위를 위해 핵무장에 모든 힘을 쏟고 있다.

북한의 경제규모에 대한 한국은행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 북한의 명목 GNI는 28조 6천억 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남한의 1068조 7천억 원에 비해 2.7%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그리고 1인당 GNI는 5.6%에 불과하였다. 북한 경제는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상대적으로 고도성장을 기록하였으나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속도전'과 같은 주민들의 노력동원에 기반을 둔 경제정책과 사회주의 계획경제 구조의 모순에 의한 경제의 비효율성 등이 누적되면서 서서히 저성장에 이어 경제침체의 길로 들어섰다. 특히 1990년대 이후부터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대외경제 관계의 단절과 내부적으로 식량난 등 경제 4년의 악순환으로 인해 1998년까지 매년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나타냈다. 이른바 고난의 행군기를 중심으로 기록한 실적들이다. 이후 대외 원조를 포함하여 남북한 경

2) 강미정, "북한이탈주민의 탈북경험담에 나타난 트라우마 분석", 『문학치료연구』 30, 2014; 박재인, "탈북과 적응이 남긴 문제에 대한 문학치료학적 접근", 『고전문학과 교육』 30, 2015; 이성희, "탈북자의 고통과 그 치유적 가능성", 『인문사회과학연구』 16(4), 2015.

제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플러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던 북한은 2006년부터 다시 하향 추세로 돌아서고 있다(김영하 2010, 239).

북한의 경제난은 공급경제가 급격하게 위축됨에 따른 식량난, 에너지난, 원자재난, 외화난 등의 형태로 표출되고 있으며 이들은 하나의 악순환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그 중에서 특히 식량난은 탈북민을 양산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2008년 한국의 이명박 정부 출범부터 대북 정책이 수정된 데다 북한 핵실험 등 남북한 관계의 경색 국면 속에서 대북 쌀 지원이나 비료지원마저 중단되어 심각한 식량난이 가중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북한의 식량난 문제는 국제무대의 장으로까지 확대되어 국제원조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향후 북한체제를 안정시키는 가장 최우선의 과제를 안정적인 식량 확보에 두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김영하 2010, 239).

사회주의적 집단 영농 방식을 유지한 채 기술적으로 노력 적으로 내려지는 조치들은 식량난 해결에 한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당분간 북한의 식량문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 핵개발에 더욱 집중하면서 대외적으로 제재 조치가 더욱 강화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북한 주민의 생활은 더욱 피폐해 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더욱이 간간히 보고되는 북한에서 발생하는 수해로 인한 피해도 북한의 식량난을 한층 더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북한에서 당의 감시아래 당에서 주어지는 배급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는 북한 주민들의 현실이 점차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탈북으로 내몰고 있다.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자.

1995년도까지는 그래 안 생각했죠, 근데 1996년도부터. 식량 때문에... 1995년도 김일성이 죽고, 그 다음에 김정일이 하면서부터 굶어죽기 시작했죠. 1996년부터 1998년도까지 엄청 힘들어가지고, 살기 힘들고, 1998년도에... 그 당시에는 먹을 것이 중요해서 중국에선 얻을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1993년도에 (러시아)에서 귀국했는데 1994년도부터 배급을 아예 주지 않더라고요. 그전까지 배급을 안 줬다가도 또 식량이 생기면 약간 뭐 함께 주고 그랬는데, 1993년도부터 아예 딱 잘라 먹고, 이전에 배급 안 준 거 아예 안주고...

1997년도, 98년도 이때 제일 악화되었어요. 그전으로부터 제대로 안줬어요. 그전으로부터 한 5년 전에도 진짜 제때 안주고, 그냥 말하면 또 굶기고 한꺼번에 쌀이 들어오면.. 그 배급 한번 타 먹는 것이 새벽부터 나서서 줄을 서야 왜요, 그렇게 줄을 서다가도 만약 쌀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쌀을 못타고 도록 집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쌀을 타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사생결단하는 거예요. 그 줄을 섰는데 깔리는 사람...그래요, 먹는 거 앞에서는,, 배고프면 배고픔을 두고 그 앞에 양반 없어요....(이순형 외 2008, 70).

북한의 식량난은 실질적으로 김일성의 사후를 즈음해서 급격히 나빠진 것으로 보인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의 경제상황이 점점 나빠지면서 탈북자는 북한에서 식량난과 극도의 빈곤을 직접 경험하기도 했지만, 주변에서 주민들이 사망하고 시체가 굴러다니는 등

의 상황을 목격함으로써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기도 했다고 한다(이순형 외 2008, 72).

한편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자신을 밀어내는 배경이 되었다고 보고하는 또 다른 요인은 열악한 사회 환경을 들 수 있다. 경제 사정의 악화로 학교에 따라서는 교사가 자신의 생계를 잇기 위해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음성적으로 상업에 종사하는가 하면 학생들 역시 등교하지 않아서 출석률이 매우 낮게 나오는 등 교육환경의 질이 극도로 나빠졌다고 한다(이순형 외 2008, 74). 교통상황을 보자면 다른 지역을 방문, 여행할 때 통행증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통행증이 있다라고 때때로 기차가 며칠씩 오지 않는 경우가 잦아 준비했던 식량이 떨어지면,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이순형 외 2008 75). 전기는 하루에 몇 시간만 들어와 집에서도 감옥아닌 감옥 같은 생활을 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열악한 사회적 상황은 탈북을 결정하거나 탈북이라는 위험한 행위를 하게 하는 직접적 계기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상황은 주민들로 하여금 탈출구를 찾는 욕구를 자극하고 기회만 되면 북한을 떠나게 하는 일반적이고 배경적이며 상황적인 조건으로 작용했던 것 같다(이순형 외 2008, 76).

그리고 대개 북한에서 탈북을 감행하는 사람들은 정치,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는 사람들이 주를 이룬다. 북한 사회에서 성분이 좋지 않은 주민을 차별하는 방법 중 하나는 그들을 남한에서 멀리 떨어진 최북단에 위치한 지역으로 보내는 것이었다. 이러한 북한의 정책은 초기에는 남한에서 멀리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효과가 있었지만, 중국이 개방된 후에는 그들로 하여금 자본주의화 되어 가는 중국을 통해 한국에 대한 소식이나 자본주의에 대한 지식을

접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정치 사회적 차별은 열악해지는 경제 사회적 상황과 함께 북한 주민들이 외부에 관심을 갖게 하고 북한을 떠나고자 하는 욕구를 강화하는 사회 전반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다(이순형 외 2008, 79).

Ⅲ. 탈북이전의 종교생활

북한 당국은 대외적으로는 종교가 국가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으며 어떤 종교도 간섭이나 차별당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종교를 믿을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다. 조선종교인 협의회가 엄연히 존재할 뿐만 아니라 조선불교도연맹, 조선그리스도도연맹 등의 종교단체도 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이 종교단체들의 존재를 통해 북한체제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에는 종교의 본질적 차원과 거리가 먼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김일성 사망 후 악화된 식량난의 해결과 사회통제를 위해 내부적으로 종교 활동에 대한 억압을 견지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확대시켜 그 혜택을 받으려는 일종의 ‘외화벌이’ 수단으로 종교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이순형 외 2015, 65).

공식적으로 북한 종교인의 수나 활동상황을 밝히지 않고 있어서 그 실태 파악도 어렵고 그나마도 이루어지는 개신교의 예배시간이나 불교의 불법시간에는 정치적인 내용을 설파하는 데 그치고 종교 본연의 활동은 없다는 증언이 있다(이순형 외 2015, 63-64).

주민들은 (교회)근처에도 못 가고
북한에서는 헌법에 종교, 종교생활

의 자유가 있다. 그래 놓고 국가가 종교 생활을 제재할 자유도 있다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한만 하지. 예를 들어가지고 북한에 있다가 탈북자들이 중국으로 탈출하잖아요? 그러다 강제 복송되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묻는 게 너 교회갔었냐 물어요. 선교사 만났냐? 교회 사람한테 뭐 돈 받았냐?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정치수용소로 곧바로 간다고. 제일 싫어하는 게 탈북자들이 크리스천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 나란데 무슨 교인들이 자유롭게 가서 예배를 드려?(이순형 외 2015, 63)

심지어 북한주민들은 신부나 목사 등 성직자들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신부와 스님을 혼동하기도 한다고 한다. 탈북자들의 증언을 모아 논 내용을 참고하면 이들은 북한에서 탈출하기 전 거의 종교경험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저희는 성경이나 말도 들어본 적이 없고, 하나님, 예수님 이런 개념조차도 없었어요. 단지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막연하게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그거에 대해서 뭐,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이순형 외 2015, 65).

북한 이탈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서 선교활동은 일종의 간첩행위와도 같이 취급된다고 한다. 실질적으로 북한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증거는 첫째, 평양 이외 지역에 교회와 성당 시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둘째, 북한 당국은 교회, 성당, 사찰을 해외 종교인과 관광객 등 방문객에게만 보여주고 주

민들의 출입이나 접근은 철저히 금지되어 있다는 점, 셋째, 개인차원의 신앙생활은 철저히 탄압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이순형 외 2015, 66).

이렇듯 북한에서는 종교생활이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는데 일부 북한주민들이 중국을 드나드는 과정에서 개신교를 접하여 신앙의 맛을 미리 보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서 북한의 가혹한 체제와 시달리다가 일찍이 받아본 적 없는 사랑을 받고는 이내 감동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한다(이순형 외 2015, 69).

2017년 현재 개신교에서 선교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북한 기독교 존재의 가능성을 엿보게 한다. 약 40만 명 정도의 교인이 지하에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하고 지하교회의 존재여부도 가능성이 점쳐지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탈북을 감행하는 사람들이 종교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북에서 빠져나온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첫 부분에서 탈북자들이 경험했던 탈북 이전의 상황을 다루는 것은 이들이 탈북하고 난 후 남한에 정착하게 되면서 종교를 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북한이라고 하는 비정상적인 사회체계시스템은 그 내부의 구성원들의 정신세계를 왜곡시킬 우려가 아주 크다. 엄격한 아버지를 두었던 기독교인이 하느님을 받아들이는데 더 거리를 두면서 신을 무섭고도 엄격한 존재로 인지하는 반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보다 원만했던 사람은 그만큼 인자하고 사랑스러운 하느님을 대면하게 되듯이 폐쇄된 사회 안에서 김일성 우상주의에 길들여져 있던 사람들은 우상을 하느님으로 대체하던지 아니면 하느님을 거부해버리고 말기 때문이다.

남한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북한을 생각하며 갖는 제일 처음의 감정은 속았다는 분노와

배신감이 주를 이룬다. 중국을 통해 남한으로 넘어와 대학생활을 하며 수기를 쓴 김주은(세바스티안·김주은 2013)양은 남한의 생활을 접한 뒤 자신이 얼마나 북한에서 속고 살았는지를 알았다고 한다.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이런 분노와 배신감 뒤에 새로이 자신의 심신을 귀의할 곳을 찾게 되는데 바로 이 부분에서 단순히 휘황찬란한 소비적 자본주의가 그 틈을 매꾸기도 하지만 그들의 진정한 안정과 변화를 위해서는 종교가 기능해야 할 것이다.

IV. 탈북과정

각 조사단체마다 탈북자를 3만 명에서 최대 10만 명에 이르기까지 추정하고는 있지만 그 규모를 정확히 산출하기는 쉽지 않다. 그 까닭은 첫째, 북한 주민의 국경 통과가 매우 비밀스럽게 이루어지고 있고, 둘째, 중국을 비롯한 제3국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은 예외 없이 중국 공안의 단속을 피해 숨어살고 있으며, 셋째, 이러한 탈북이 은밀하면서도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고 넷째, 탈북자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여 통계자료를 산출하는 기관 간에 정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인성 2005, 6-34). 그럼에도 전체적인 조사가 반영하고 있는 사실은 무시 못 할 규모로 탈북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탈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협을 감수하며 생명의 위협을 위협받는 상황에 노출된다. 위에서 살펴본 직접적인 계기들로 인해 탈출을 감행하며 그 루트마다에서 처하게 되는 상황에 대처해야 함은 물론 붙잡혔을 시에 본국으로 송환되어 수용소에 갈지 모른다는 불안에 시달려야 한다. 북한을 탈출하여 성공적으로 남한에 입국한 새터민들의 증언을 보면 그들이 탈북 하는 과정은 불안과 두려움, 공포,

등으로 점철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미지의 세계로 향한다는 그런 설렘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탈출에 대한 두려움과 불확신이 그들 감정의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그들의 내부적인 불안과 두려움 못지않게 국경을 넘으면서 발생하는 외적인 상황과 물리적인 제반 상황도 그들에게 상처를 안겨준다. 중국 등의 해외를 경유하는 경우 중간의 브로커들이 사기를 치는 경우도 허다하고 최악의 경우 중국의 공안이나 북한 당국에 의해 체포되어 본국으로 송환된 후 수용소로 가기도 한다. 그야말로 죽음을 건 탈출이 아닐 수 없다. 일단 북한으로 송환된 주민들은 제외하고라도 탈북에 성공해서 남한으로 들어온 탈북자들은 이 탈북 과정에서 겪은 상처들이 내내 트라우마로 남게 된다. 북한에서의 생활 못지않게 탈북과정에서 겪은 불안과 공포, 배신감 이런 것들이 잘 치유되어야 이들의 성공적인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순형에 의한 분석에서는 이들 탈북자들도 탈북의 과정에서 종교적 체험을 한다고 하며 제시한 부분이 있다. 이들이 겪는 상황들이 자연스럽게 그들을 초자연적인 힘이나 신에게 성공을 희구하게 하며 또는 기적과 같은 성공을 내려주기를 바란다는 것이다(이순형 외 2015, 88-104).

절박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했는데..제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니까 그 말씀들을 왜 안 붙잡겠어요. 하느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한국에 능히 보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믿습니다. 고백했어요,.. 저 하나님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키기를 원하시고 응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

들으시는... 그리고 제가 시편 말씀을 저한테 적용하면서 사람이 너무 갈급하니까요. 뭐 완전히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분을 아주 목숨 걸고 붙들었어요, 그리고 기도는 그냥 뭐 대충 하는 기도가 아니고 필사적인 기도를 했어요(이순형외 2015, 98-99).

내 삶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생각하는데 그냥 신이란 이런 개념도 없었는데 그냥 아 신이 있다면 날 좀 살려주세요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하는 순간 형이 저의 목덜미를 딱 잡아끌어 올리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 구사일생이었어요 진짜 기도가 이게 지금 한국에 왔으니 하나님 이런 걸 알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 하나님 이런 것 잘 몰랐었어요. 신앙 간증할 때도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암튼 목덜미를 끌어올리는 거예요(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2015, 34-35).

이들은 절박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에 다쳐서, 북한의 김일성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살려줄 것 같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기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그동안 그들의 의식세계를 점유하고 있던 김일성의 우상숭배, 신격화된 인간의 자리가 북한을 떠나옴과 동시에 타종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열려진 마음으로 변화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미묘한 변화가 보여주는 것은 주체사상으로 무장된 북한주민들의 마음이 김일성사상의 표피를 제거한다면 그들에게도 종교가 다가설 자리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탈북민이 정착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치유하고 남한 사람과 조화를 이루며 살기 위해서 종교가 설 자리를 고민해야 할 때다.

V. 남한 정착과정에서의 상처와 치유

논자는 탈북에 성공해서 남한에 들어와 정착한 사람들을 주목한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제 탈북에 성공해서 남한에 들어와 정착해 사는 사람들이다. 남한으로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간첩이 아닌지를 식별하는 과정을 거쳐 남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은 뒤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까지 국적도 없이 도망자 신세로 살던 탈북민이 공식적으로 남한 사회에 편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이들이 적응하여 훈련을 받는 곳인 하나원에서는 한국사회를 이해시키는 작업과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심리검사나 상담 등을 통해 심신의 안정을 도모하고 진로지도 및 직업 훈련을 한다. 그러나 하나원에서의 생활은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탈북자들에 의해 보고된다. 죽음을 경험하며 극도의 불안정한 심리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탈북과정에서 경험한 끔찍한 고통을 어루만지고 다스리는 과정은 생략한 채 정착을 잘 하자는 형식적인 교육으로 그치고 만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이들이 한국사회에서 적응해가려면 그들이 겪은 일차적인 심리적 불안정을 다스려주는 과정이 제일 먼저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작업에는 종교가 그 몫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원에서는 실제로 주말마다 개신교, 천주교, 불교 단체 성원들이 방문을 한다. 종교에 관심이 있는 탈북자들은 주말마다 이들과 접하며 종교경험을 한다. 세 종교 중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하나원의 탈북민은 종교를 접해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개신교를 선택한 사람들 중 상당수는 중국에서 이미 개신교와 선교사를 경험한 사람들이다(이순형 외 2015, 111). 중국과 제3국을 경유할 경우 선교사들이 사역하며 이들을 돕고 있고 이들로부터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쉽게 개신교를 통해 종교생활을 시작하기도 한다. 하나원에서는 종교인들이 이들에게 필요한 물품과 경제적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발길을 교회로 이끈다. 개신교는 선교활동을 매우 적극적으로 한다.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어야 하는데 개신교가 이러한 작업을 가장 많이 하고 있다. 먹을 것, 숨을 곳이 가장 필요할 때 그들에게 전달한 밥 한 그릇과 작은 방은 이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으로 다가간다(이순형외 2015, 119). 여하간 각 종교 간의 이러한 노력들은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종교가 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단 하나원을 거쳐서 남한 생활에 직접적으로 부딪치게 되면 이들은 그 전에 겪었던 고통과는 다르지만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낮설기만 한 세계와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생면부지의 땅에서 경제적인 지원도 미비한 채, 또 낮 설은 시선을 느끼며 살아가야 하는 이들에게 대한민국에서의 생활을 그리 녹녹치 않을 것이다. 직업을 구하기도 쉽지 않고 또 직업을 구해도 그나마도 저소득을 올릴 수 있을 뿐이다.

더군다나 이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심리적인 갈등이다. 탈북자에 대한 편견과 몰이해와 무시들, 이런 것들로 야기되는 외로움 등은 이들이 정말로 감내하기 힘든 요인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한국교회가 그들을 맞이하지 못하는 거야. 북한에 동족들이 왔는데도 사실 관심도 없고, ‘왜 왔냐’ 그런 얘기가 하고, 얘기들은 학교에 가면 ‘김정일이, 김일성이 꼬봉이냐?’ 애들고 교육이 안 돼 있으니까, 아이들도 그래서 북한 아이라는 걸 숨기고 담임 찾아가지고 ‘탈북자라는 걸 제발 말하지 말아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이게 한국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점점 위축되니까...(이순형 외 2015, 127).

위에서 보듯이 한국사회는 탈북민은 자신의 신분을 가급적이면 드러내지 않고 살려고 한다. 이것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편견뿐만 아니라 무시하는 태도와는 연관이 있다.

아따, 그 아줌마가 얘기하는 게 “어디서 거지처럼 살다가 여기를 와가지고 정부 돈이나 타먹는 주제들이...” 열이 딱 받는 게 미치겠더라구요. ‘거지같은 것들이’ ‘남의 나라’ 이러더라구요. 어디 남의 나라 땅에 와서 정부 돈이나 타먹는 주제들이 그 따위, 여기 와서 뒤풀이질을 하나 하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구요(이순형 외 2008, 160).

이렇게 그들은 편견과 무시, 외로움과 싸우고 있다. 동족을 찾아 온 탈북민들은 이도 저도 아닌 거북스러운 동포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다. 통일은 대박이라면서 통일 후에 찾아 올 경제적인 효과에는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통일을 이룬 후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듯 냉소적인 모습이 지금 한국사회의 현실이다.

탈북민이 자신의 고향을 등지고 탈북과정을 통해 남한에 정착하면서 겪게 되는 모든 상

처들은 통일이 되었을 때 직면하게 될 문제들을 미리 보여주는 단초가 된다. 서로 다른 체제 아래서 살아온 국민들이 느끼는 서로에 대한 이질감은 지금의 현실에서 이렇듯 드러나고 있지만 통일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북한의 전 주민과 남한의 전 국민이 감당하며 겪게 될 큰 사회문제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소수의 탈주민들의 상처를 보듬는 데도 버겁지만 이제 통일이 다가온다면 남과 북의 모든 구성원들은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가 동화되기 위해 분단의 세월만큼 또 갈등의 시간을 가져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정치 경제의 통합이라는 거대담론이 해결해 낼 수 없는 내용이 바로 여기서 발생하는 것이다. 경제적 빈곤함으로, 정치적인 탄압으로 탈북 할 수밖에 없었던 탈북민들이 탈북을 하면서 갖은 고초를 겪은 후에 남한에 도착하고 나서도 편견과 무시로 시달리며 남모를 상처를 달래야 하는 이들을 치유하는 과정은 통일을 대비해 어느 분야에선가 책임지고 맡아야 할 것이다. 서두에 제시했듯이 탈북과정에서 겪는 이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는 책임을 종교의 영역에서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과정에서 북한의 주민들은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정치적 대상에서 종교라는 중간대상으로 의지처를 옮겨가서 나름의 치유를 받을 수 있고 남한 사람은 남한 사람대로 이질성을 지닌 동포들을 맞이하는 과정에서 부닥치는 당혹감을 종교적 감성으로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렇다면 종교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지를 살펴보자.

VI. 탈북민의 동화를 위한 종교의 역할

통일 이전에 북에서 넘어오는 새터민에게 도움을 주는 곳은 정부에서부터 특정 단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겠으나 무엇보다도 이들이 겪는 심적 고통을 치유하기에 위해 기댈 수 있는 가장 적당한 대상은 종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새터민을 향한 종교의 구원방식은 곧 통일 이후에 남과 북의 주민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상황에 미리 대처해 볼 수 있는 선제적인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북에서는 신앙을 갖지 않는 채로 살아왔던 북한 주민들이 남에 와서 겪게 되는 정신적 방황은 생각보다 클 것이다. 북에서 종교를 대체했던 김일성주의와 주체사상이 허구임을 깨닫고, 남한에 대한 서구사회의 발전상을 보고 나서 북한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통제된 억압사회였는지를 안 그들은 심리적인 공황상태에 빠지게 된다. 독재적인 통치자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이 그들의 정신세계에서 일종의 종교적인 역할을 해왔던 것인데 이것의 붕괴는 곧 북한주민들의 정신적 붕괴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터민들에게 경제적인 자립과 사회적인 처우를 하는 것 못지않게 그들이 맞닥드리는 정신적인 공황상태를 매꾸어 주는 정신적인 측면에서의 작업이 필요하다. 실례로 하나원에서부터 종교적인 경험을 약간 해본 새터민들은 종교단체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는 경우도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탈북과정에서부터 개신교 등의 종교단체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탈북을 하게 되는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들에게 종교는 긍정적인 중간대상일 수 있다. 탈북과정에서 도움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남한에 정착하는 과정에서도 생면부지의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낯선 곳에서 종교는 이들에게 심적인 안식처를 제공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대표적인 종교들은 어떤

시각에서 통일을 대비해야 하는지, 또한 각 종교들은 기본적인 그들의 교리와 통일을 어떻게 연관 지어 생각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자. 기독교와 불교가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는 신앙체계와 통일을 연결지어보고 통일의 과정에서 또 통일을 이루고 난 후에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를 기독교와 불교로 나누어 생각해 보자.

1. 기독교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의 보편적인 진리이다. 그러나 그 진리가 구체적으로 작용하는 데 있어서는 그 민족의 역사적 전통과 시대적 상황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의 특수성을 띠게 된다(유동식 1986, 194). 기본적으로 기독교는 말씀이 육화된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모인 공동체로 하느님이 직접 역사에 개입하여 역사하신다는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역사를 보면 처음 천주교가 전래되었을 때 가지고 있던 예언자적 신관과 인권의 평등사상 그리고 영적 윤리사상은 근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념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사회개혁이나 운동으로까지 발전되지 못했다. 그 중요한 이유의 하나는 거듭되는 박해 속에서 지식층의 대부분이 탈락되고 신도들은 대체로 가난하고 무력한 서민층으로 이루어지게 된 데 있다. 그들에게는 초월과 평등이 가혹한 현실세계에서가 아니라 내세에서의 영적인 것으로 믿어지게 되었다. 내세 지향적이며 영적 구원에 치중하게 된 것이다. 이것을 더욱 부채질한 것은 선교본부의 정치와 종교 분리정책이었다. 이것이 결국에는 일본의 식민지 치하에서도 가톨릭교도들로 하여금 침묵을 지키게 했다. 한국 가톨릭교회가 현실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은 1960년대의 제 2바티칸 공의회 이후부터의 일이다(유동식 1986,

210). 이렇듯 기독교가 사회참여에 적극 개입한 것은 최근에 와서야 일이다.

물론 종교의 정치·사회 참여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고 종교내부에서 계속 고민하고 부닥치는 문제이지만 역사적 관점이 결여된 동양 종교에 비해서 역사 자체가 신의 주도하에 진행된다고 생각하는 기독교인에게 통일의 문제는 하느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중대한 사건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래서 나름대로 기독교인들은 신앙의 문제로, 기도의 문제로, 실천의 문제로 이 통일에 접근하고 기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바탕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우선 신앙의 문제로 하느님의 역사하심을 기대는 한편 실천적인 방법으로는 북한 주민에게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거나 선교하는 일, 탈북자를 돌보는 일, 남한 주민에게 통일이 왜 합당한지를 알리는 일 등의 일종의 종교 교육적인 일 등이 있다.

특히 본고에서 다루는 탈북자들의 의지의 대상이 되는 중간대상의 역할을 개신교와 천주교가 할 수 있다고 본다. 신앙의 문제를 탈북자들과 함께 그리고 통일 후에는 북의 동포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이다. 서로를 보듬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정서를 종교의 가치에서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평화와 공존, 사랑과 이해로 대변되는 기독교의 기본적인 가치를 우선 새터민에게 나누고 통일 후에는 북한의 동포와 함께 나눌 수 있다.

실천적인 측면에서 기독교가 하고 있는 일들은 남한으로 탈북 하고자 하는 사람을 돕는 일에서 탈북과정을 거쳐 남한으로 들어와서 정착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신앙으로 유도하여 이들이 정신적으로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데 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기독교인들이 직접 북한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선교하는 역할도 한다. 종종 언론에 드러나고 있는

선교사들이나 목사들의 방북은 다양한 통로로 시도되고 있다. 중국을 거치는 경우도 있고 해외의 방문단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렇게 방북한 기독교인들은 북한당국에 의해 체포되면 영락없이 정치범의 신세로 강제노역을 감당해야만 하는 정치수용소에 감금이 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 사회를 변혁시키고자 하는 치기적인 열망만을 가진 개인자격의 방북은 그 한계를 금방 드러내고 말았다. 북한과 인접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는 지금 상당수의 기독교인이 지하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중국당국도 표면적으로는 종교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사회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기독교인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이러한 중국과의 연계를 통해 북한의 기독교인을 후원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남북이 통일되기 이전에도 기독교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만 통일 이후에도 역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정신적인 통일에 대한 대비 없이 하나의 정치체제 아래 모인 남북한의 주민들은 서로 적대성을 드러낼 여지가 많이 있다. 이 경우에 북한 주민들에게는 신앙의 정신적 자양분을 제공하고 남한의 주민들에게는 사랑과 평화의 매세지로 북한의 동포들을 포용하는 역할을 기독교는 할 수 있을 것이다.

탈북민과 가장 잦은 접촉을 하는 종교단체는 기독교이고 이들의 기본적인 가치관도 역사에 적극적인 참여하는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므로 통일 이전과 통일 이후에 기독교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주목된다.

2. 불교

남한의 불교도들은 통일신라시대의 불교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라를 통일하는

과정에서 불교는 국가정치의 바탕으로 삼국 통일의 이념적 배경 역할을 하였으며 백성들의 주요 세계관이었다. 불교에서는 통치의 근본목적은 정법치국에 두고 있다. 그리고 정의에 의한 법치와 자비에 의한 덕치를 기본 정치이념으로 하여 정법정치를 실천한 이상적인 통치자로서 전륜성왕을 제시하고 있다. 전륜성왕의 정법치국의 이념을 현실적으로 구현한 왕이 고대 인도의 아쇼카왕인데, 그는 정법에 의해 모든 인민의 이익과 안락을 증진하는 것을 정치의 목적으로 삼고 있었다. 이 같은 정법치국 이념은 불교의 수용과 함께 신라 정치체제에도 자연스럽게 수용될 수 있었다. 통일의 대업을 완수한 문무왕이 “호국의 대통령이 되어 불법을 신봉하고 방가를 수호 하겠다”는 의지 역시 정법치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승려들의 자문과 간언 및 불교의식은 신라를 정법을 수지하는 국가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조현결 2009). 신라 통일의 건인차 역할을 한 화랑도는 자장, 원광을 거쳐 원효에 의해 일심(一心)사상과 화쟁(和諍)사상으로 집대성된 신라불교가 삼한을 규합하는 통일의 사상적 기초를 제공하였던 것이다.

남한에서 기독교와 양대 종교로 불리는 불교는 정법이라는 이상으로 통치를 직접 할 수는 없겠지만 통일을 하고 난 후의 남북한 주민들의 정신적인 자산을 정법의 정신으로 물들게 하는 데는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불교에서 지향하는 이상상은 보살인데 대승불교 특히 화엄경 철학에서는 보살들이 실현해야 하는 궁극적 목표를 법계무애연기라는 말로 설명했다. 인연연기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애, 즉 대립분별 투쟁이 없는 자비회사의 네 가지 한량없는 청정심이 인이 되어 우주자연 속에서의 개인생활이나 가정생활, 그리고 사회생활, 국가민족의 생활, 국제적인 인류의 공동생활

그리고 그 인류의 생활이 자연의 질서와 리법(理法)에 어긋나지 않고 조화를 이루어 법계 즉 모든 현실의 제현상이 자연의 리법에 일치하는 그러한 관계가 이룩되는 것, 이것이 보살이 추구하는 목표이다. 불교가 사람의 더러워진 마음을 정화하는 것을 제일가는 과제로 삼아 온 만큼, 불교수행의 목표를 주관적인 심성의 정화, 심성의 도야의 측면에서 강조한 말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의 신라불교, 특히 원효의 불교는 그러한 심성의 도야는 그 자체로서 끝나는 소극적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인간관계 사회적 제현실 속에서 이와 같은 무애의 연기를 실현하는 행동으로 구체화되어야 함을 강하게 주장함으로써 오늘과 더 나아가 미래세계의 인류에게 훌륭한 행동지침이 되고 있다(이기영 1984, 13).

고통과 허위에 저항하고 썩에 허덕이는 민중을 구하고자 하는 실천적 사상인 불교의 보살사상으로 한민족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 보살도를 실천하는 보살행을 실현해야 한다. 보살의 정신은 고통에 처해있는 한민족을 위해 끊임없는 실천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통일을 위하여 보살의 길을 가야 한다. 아놀드 토인비가 미래의 세계를 구하는 길은 보살의 길밖에 없다고 하였다. 보살은 중생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삼는다(이기영 1984, 15). 보살은 모든 중생의 구제에 힘을 쏟느라 자신의 구원도 연기한다. 타인의 구제에 온 힘을 쏟는 보살의 입장에서 불교도는 북의 동포를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보살됨을 받아야 하는 존재인 북한인도 넓은 경지에서 보살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즉 남한과 북한의 국민 모두가 자신을 넘어서는 타인을 위한 보살도의 길에 다가설 때 남북한의 통일은 진정한 사람의 통일로 결실 맺

을 것이다.

남북한의 평화의 실현, 사회자체의 정법화, 우리국민 자체의 보살화, 모든 핵심을 보살과 마음가짐에 두고 사심없는 일심동체적 심성의 함양, 자비희사의 마음을 현실화에 구현하고 보살행을 실천하는 불교도의 노력은 남북한에 평화적 통일을 가져오는 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다(이기영 1984, 16). 뿐만 아니라 북한 동포와 남한의 국민들이 모두 평화로운 자비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데 불교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타인의 구제에 힘쓰는 것은 곧 자신을 구원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남북한의 구성원이 서로가 서로를 보살의 정신으로 바라보는 공존의 상태가 아마도 정치적 경제적 통합이후에 도래하여 할 진정한 민족의 통일의 한 상태가 아닐까 생각한다.

VII. 결론

지금까지 탈북민이 발생하는 북한의 상황을 서두로 탈북민이 탈북이전에 겪었던 경험들과 탈북의 과정에서 맞닥드리는 상처들과 고난들, 그리고 다행히 탈북에 성공하여 남한에 정착하는 새터민들이 겪는 고통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들이 각 단계마다 겪는 고통과 상처들이 치유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새터민이 경험하는 내용들은 단순히 이탈자의 상처를 분석하고 치유한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통일 이후에 다가올 수 있는 남북한 주민들의 경험을 미리 겪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물론 통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획득하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주변인으로서의 고통을 겪어야 하는 새터민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도 충

분히 이루어져야 함은 말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정부주도하에서만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사랑과 인도의 정신으로 종교가 역할 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북한의 탈북민들을 위해 개신교가 현재는 가장 많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할 때 개신교뿐만 아니라 불교와 그 외 여타 종교들도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본다. 그렇지만 현재 남한의 종교를 양분하고 있는 기독교와 불교는 자신들의 종교적 세계관에 입각하여서 통일에 나름대로 기여하는 역할과 함께 통일 후에 남북한 주민들이 겪을 수 있는 정신적인 영역에서의 혼란을 평화스러운 상태로 옮기는데 기여해야 된다고 본다.

통일은 비단 정치 경제의 영역에서만 다룬 일이 아니다. 정치의 대상이자 주체이고 경제의 대상이자 주체인 사람에 대한 정책과 배려가 없으면 결국 통일이 반쪽자리가 될 뿐 엄청난 후유증에 시달려야만 한다. 통일의 과정에서 상처 입을 지도 모르는 남북 구성원에 대한 치유와 돌봄이야말로 통일의 정책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시해야 될 부분인지도 모른다. 인간의 정신과 마음을 다루는 종교의 역할이 그래서 더욱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통일을 대비하는 시점에서 각 종교계는 자신의 설자리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미정. 2014. “북한이탈주민의 탈북경험담에 나타난 트라우마 분석”. 『문학치료연구』 30: 413-437.
-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엮음, 2015, 『탈북민의 적응과 치유 이야기』 서울: 도서출판 경진.
- 김영하. 2010. 『새터민을 통해 본 남북한 사회 그리고 통일』 대구: 경북대학교 출판부.
- 김인성, 2005, 「탈북자 현황분석: 탈북, 중간기착, 정착까지의 전 과정의 총체적 분석」, 『민족연구』 14: 6-34.
- 박재인. 2015. “탈북과 적응이 남긴 문제에 대한 문학치료학적 접근”. 『고전문학과 교육』 30: 381-419.
- 세바스티앙·김주은. 2013. 『열한 살의 유서』 서울: 씨앤아이북스.
- 유동식. 1986. 『한국종교사상사』,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 이기영. 1984. 「불교적 입장에서 본 평화통일의 이념과 방안」. 『종교와 통일』 서울: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종교분과위원회.
- 이성희. 2015. “탈북자의 고통과 그 치유적 가능성”. 『인문사회과학연구』 16(4): 1-21.
- 이순형·조철수·김창대·진미정. 2008. 『탈북가족의 적응과 심리적 통합』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순형·최연실·진미정. 2015. 『북한 이탈주민의 종교경험』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조현결. 2009. 「불교의 정법치국의 이념과 신라정치체제에서의 수용: 신라의 삼국통일 이전 시기를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16(3): 131-154.

국문참고문헌의 영어표기 (Korean References in Roman Alphabet)

- Cho Hyun-guel. 2009. "The Ideology of Buddhism's Political System and its Acceptance in the Silla Political System: Focusing on the Silla's Unification Transition Period."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16 (3):131-154.
- Kang Mi-jung. 2014. "Trauma Analysis of North Korean Defectors' Experiences of North Korean Defectorism." *Research on Literature Therapy* 30: 413-437
- Kim In-sung. 2005. "Analysis of the Status of North Korean Refugees: A Total Analysis of All Processes from Defection through Interim Stops to Final Settlement." *Ethnic Studies* 14: 6-34.
- Kim Young-ha. 2010. *North-South Society and Unification through the Settlers*. Daegu: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Press.
- Konkuk University Unification Studies Humanities Research Group. 2015. *The Adaptation and Healing Story of the North Korean Refugees*. Seoul: Kyungjin Book Publishing.
- Lee Ki-young. 1984. "Ideology and Plan of Peaceful Reunification from the Viewpoint of Buddhism." In *Religion and Unification*. Seoul: Religious Subcommittee of the Parliamentary Unification Policy Advisory Council.
- Lee Soon-hyung, Cho Cheol-soo, Kim Chang-Dae, and Jin Mi-Jeong. 2008. *Adaptation and Psychological Integration of North Korean Families*.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 Lee Soon-hyung, Choi Yeon-sil, Jin Mi-jung. 2015. *Religious Experience of North Korean Defectors*.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 Lee Sung-hee. 2015. "The Suffering of Defectors and Their Healing Potential." *Studies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16 (4): 1-21.
- Park Jae-in. 2015. "Literature Therapeutic Approach to Problems Left by North Korean Refugees and Adaptation." *Classical Literature Education* 30: 381-419.
- Ryu Dong-sik. 1986. *The History of Korean Religious Thought*. 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 Sebastien/Kim Ju-eun. 2013. *Eleven Years Old*. Seoul: C & A Books.